



2018년 2월 11일(제862호) 연중 제6주일(세계 병자의 날)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이른 김 죄기 이니다

군인들에게 ‘너희가 가장 서러웠을 때가 언제니?’라고 물으면, 십중팔구 ‘아플 때’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 설움을 많이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나병환자를 만납니다. 나병환자들은 우리가 체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서러움을 체험하며 평생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나병의 치료법이 발견되었지만, 예수님 시대만해도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일컬으며, 하느님의 저주를 받아 걸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된 생활을 했으며,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에는 아무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혹 혼인한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는 생이별하여 격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려야 하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다니며 혹 지나가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외쳐야했습니다. 아마 나병환자들은 몸이 아픈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 부정한 자라고 여기며 세상이 찍었던 ‘낙인’에 더 설움을 느끼며 아파했을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들은 하느님의 말씀들은 ‘치유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

시는 치유는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완전한 치유임을 전합니다. 더불어, ‘치유 받은 자’는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날에도 나병환자들은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현대판 나병환자들은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또 육체의 질병을 죄의 결과로 받아들여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있습니까? 치유자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시와 무관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픈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혁(사도요한) 신부
진전(육군 1사단) 상당 주임

- 제 1 특 시** 레위 13,1-2.44-46
- 회 답 송**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 제 2 특 시** 1코린 10,31-11,1
- 복음 본보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복 음** 마르 1,40-45
- 영 성 제 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진리를 살다

신앙인이 하는 일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달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상을 얻는 길도 아니고, 입신출세하여 사람들의 존경과 찬양을 받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득(得)과 실(失)을 먼저 계산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은 허무를 좇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철저히 끝까지 위한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는 “나는 태양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1,14)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헛됨을 우리도 때때로 체험합니다. 사람이 죽어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호화찬란하였어도 어느 날 모든 것은 허무로 끝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한 줌의 재가 됩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그것으로 하느님을 위한 한 주간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미사는 앞으로 한 주일 동안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마음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은’ 예수님의 삶에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만을 보는 협소한 우리의 시야를 벗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갑니다.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아서 하느님의 생명을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미사와 신자생활

모시고 갑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 그분의 자녀 되어 살 것을 바라면서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바람을 잡듯 헛된 일’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여 하느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

인간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저녁에 우리가 그분과 긴밀히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상황에서 슬픈 계기 또는 기쁜 동기에서 함께 모여 성찬을 행합니다. 슬픈 동기는 예컨대 장례식 때입니다. 기쁜 동기로는 돌이나 생일, 결혼식, 회갑 등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생의 중대한 사건으로 특징지어지는 상황입니다. 성찬은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 즉 물질적 음식을 먹는데 우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기요 또 그 계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생활 공동체이며 결속과 일치인 것입니다. 성찬은 타인의 생활, 기쁨, 고통과 운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접촉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묵	상
---	---	---	---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난, 이들과 함께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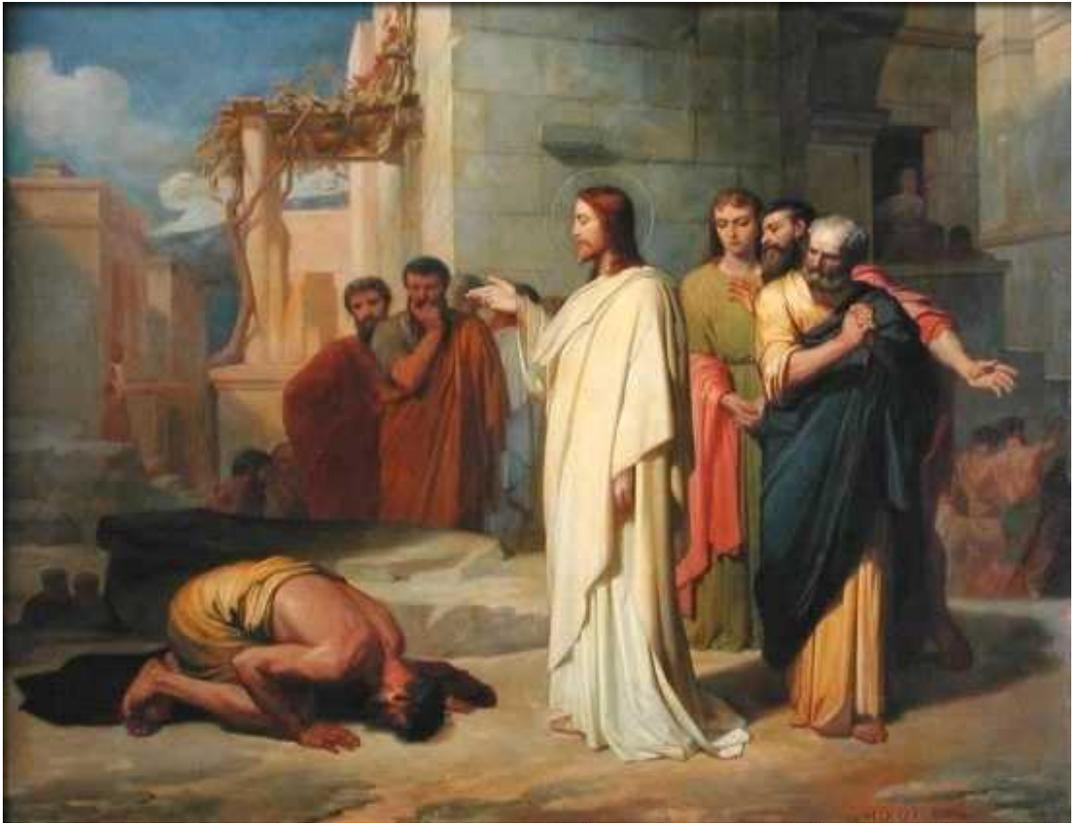
비록,
약하고,
부족하다 말할 하지만,
아니요,
충분히 가치 있는
이들입니다.

일게서,
사랑하는
이들인걸요.

난,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상화이야기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장-미리 멜키오르 도즈(1827-1913)
1864년 작, 캔버스 위 유화 80 X 62 cm
니스 미술관, 프랑스 니스

그림 속에서 나병 환자는 그림 왼쪽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나병 환자는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청한다. 환자 자신이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라며 치유를 청했고,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오늘 복음 말씀은 전한다.

우리가 살면서 어디까지가 내가 원하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당신이 저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무리 외쳐보아도, 묵묵부답이시라고 치부하기 쉽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확신한 것은 그분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저 나병 환자처럼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은혜(벨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6주일: 토성대 진척 신부

◆ 교구장 동정

- 목포해군(해군 3함대) 성당 사목방문
 때: 2월 11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2월 13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나회는 온 세상에 기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야리” (마르 16,15)